처가살이 시집살이 세상살이

(여호수아 11:1~23)

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17.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처가살이 시집살이 세상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처가살이 시집살이 세상살이'
"남자는 장가가고 여자는 시집간다."라고 합니다. '장가'는 장인어른의 집이고 '시집'은 시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녀가 같이 살 수 있겠느냐는 농담을 합니다. 처가살이와 시집살이는 분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처가살이의 역사가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까지는 처가살이가 풍습이었다고 하는데, 유교가 건국이념이 되면서 남자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시집살이 풍습이 자리 잡히도록 나라에서 강력하게 유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선시대의 상황에서도 처가살이의 예는 남아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곡 이이 선생님입니다. 원래 본가는 경기도 파주인데 어머니 신사임당이 강릉 분으로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나셨고, 율곡 이이 선생님도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장인 댁의 뒤뜰에 사위 서(壻)자를 써서 서옥(壻屋)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위가 그 집에 머물면서 밤이면 장인장모에게 와서 '신부와 자게 해 달라'고 간절히 애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세 번 애걸을 한 뒤에 장인장모가 허락을 하면 아내가 서옥에

들어가서 동침을 할 수 있었고, 애를 낳아서 장성하게 되면 본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도 처가살이를 하고 야곱도 처가살이를 하다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 본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속담에 "겉보리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보리'는 타작한 후에도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것들인데 '목구멍에 풀칠만 할 수 있어도 처가살이를 피한다.'는 말입니다.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라는 말도 있어요. 반대로 시집살이에도 고충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우면 '시집살이는 사는 것이 아니라 분가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처가살이도 시집살이도 우리 인생이 전개되는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것은 세상살이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과 세상의 육체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과 접하며 살아가는 세상살이란 무엇일까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여자를 통해 여자의 집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처가살이고, 남자를 통해 만나게 되는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시집살이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육체와 결합이 되어 만나는 세상에 마음이 완전히 올인 되어 버리는 상태가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의 인식으로는 처가살이를 하는 남자를 썩 훌륭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무능한 남자로서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시집살이 하는 여자는 불행한 여자로도 봅니다. 그러나 육체살이 즉 세상살이를 하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개념에서 이탈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 중부에 있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하게 되고, 히위 족속 중 기브온과는 화친의 조약을 맺고 중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동맹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으로 쳐들어오자, 여호수아가 무찌르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북부가 남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북부에 속한 왕들 중에 가장 머리격인 하솔 성읍의 왕 야빈이 리더가 되어서 북부 전체가 동맹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서, 요단강 강물이 시작되는 메롬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2차 동맹이 결성되어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북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총단결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로 인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이 되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 진멸상황은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도저히 납득

하기가 어렵고 참혹할뿐더러 만민평등, 인간존엄성 등의 절대적인 가치들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사람들끼리 하는 전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치르시는 전쟁인데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6, 8, 1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보자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명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바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라고 하시는데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인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창6: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십니다. '육신이 됨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빠지고 나니 인간의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에 올인 하게 됩니다. 육체 속으로 인격이 올인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만두피 속으로 인격이 만두 속이 되어서 들어가 앉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육체를 통해 접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바로 고깃덩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신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사람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에 부합하는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고, 그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가 고깃덩어리가 된 자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의 이스라엘 선민의 승리와, 초대교회 때에 선민이 받게 되는 탄압과 순교에 대해서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쳐부수고 승리하는 대신에 왜 로마시대 때는 박해와 탄압과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전쟁이 뜻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스라엘에 패배한 가나안 족속들의 죽음과, 로마에 의해 순교당한 선민들의 죽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선민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죽음의 의미는 사람의 인격이 육체에 함몰된 자들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일에 대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고, 기뻐하고, 소원하고, 미워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만물의 영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육체를 통해 세상을 만날 때에 마음이 직접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 인격과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

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은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는데, 그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육체가 움직이고 반응해야 하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나타나도록 자기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는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육체가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인데, 이게 사람이고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의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육체로 만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나타나는데 이게 원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육체로 만나는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이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에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의 죽음의 의미는 육체라는 옷을 벗은 것뿐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근무하며 입게 되는 작업복(근무복)인데, 본래의 사람은 이 작업복조차도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관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자꾸만 내 스스로가 육체에 올인 되려고 합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이 세상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인데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에 내 마음과 인격이 들어가 버리고 빠져 들어가 매몰되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로, 세상에 쏙 들어가 사는 세상살이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족속의 죽음이 그러한 세상살이를 하는 자들의 죽음인데 나도 세상살이를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냐?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죽음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내가 바로 지금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면서도,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이 매몰되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일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기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나 했지요. 여전히 세상살이를 하며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

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데 왜 나는 죽지 않고 있을까요? 처가살이나 시집살이처럼 육체를 통해 만나고 있는 이 세상살이에 완전히 마음이 함몰되어 살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졌는데, 그 나의 죽음을 주심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메롬 물가에 모인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의 수를 50만 명이라고 친다면, 그 50만 명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지금도 일어나야 하고, 70억이라면 그 70억이 거의 다 죽어야 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처가살이나 시집살이처럼 세상 속에 쏙 빠져서 세상살이를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석가모니의 이름을 불러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다 똑 같습니다. 내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고깃덩어리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심판이 주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메롬 물가에 모인 수많은 군인을 다 죽이고, 그 후방에 있던 성읍까지 찾아가서 다 죽이는데 그 죽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나는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세상,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시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러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므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세상살이를 끝내는 것입니다. 70억 인간의 죽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기독교가 발흥하다가 다 무너지고 성지순례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유럽에서 또한 기독교가 약해졌고,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동성애니 뭐니 해서 난리입니다. 개신교는 말할 수 없이 약해졌고 가톨릭은 조직이 워낙 강하다보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뿐인데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교계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살이에 대한 경계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살이를 하는 중에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집살이, 처가살이처럼 내 몸이 들어가서 살듯이 내 마음이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세상살이가 개선되고 향상되고 필요한 것들이 보충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아닌 하늘살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음이 천국에 쏙 들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이 땅에서 천국살이를 하는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시집에 살고 있는 아내가 시댁을 너무 좋아해서(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처갓집에 갈 때에도 얼른 일만 보고 시댁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하늘살이의 길을 열기 위해 오셨는데, 기독교가 말씀 속에서부터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세상살이를 하며 고깃덩어리가 되어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느끼면, 목사님들

은 그 필요를 의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줍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부터 기독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살이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살려두신 이유는 내가 좀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이 임해서 죽이고 계시지만 그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고깃덩어리로 세상살이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늘살이의 길로 나아가서 진짜 축복이 무엇이고, 진짜 복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세상살이로 사는 고깃덩어리 인격의 죽음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깨달아 받아들임으로써,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하늘살이의 삶이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